

독서에 열중하는 모란봉 벤치의 북한청년들

북한의 책·독서·출판풍경 스케치

유영구

통일문화연구소 통일문화연구팀장

북한의 책값은 2원 이하인데

이는 공장노동자 월급 70~80원

수준에서 보면 비싼 편이다. 정책적으로

대량발간하는 김일성·김정일 서적이

중심이 되므로 책은 다양하지

못하다. 대중적인 인기가 높은 책은

역시 문예물이다. 오락수단이 적은

탓인지 평양시내나 산책로 등지에서

독서에 열중하거나 지하철·전차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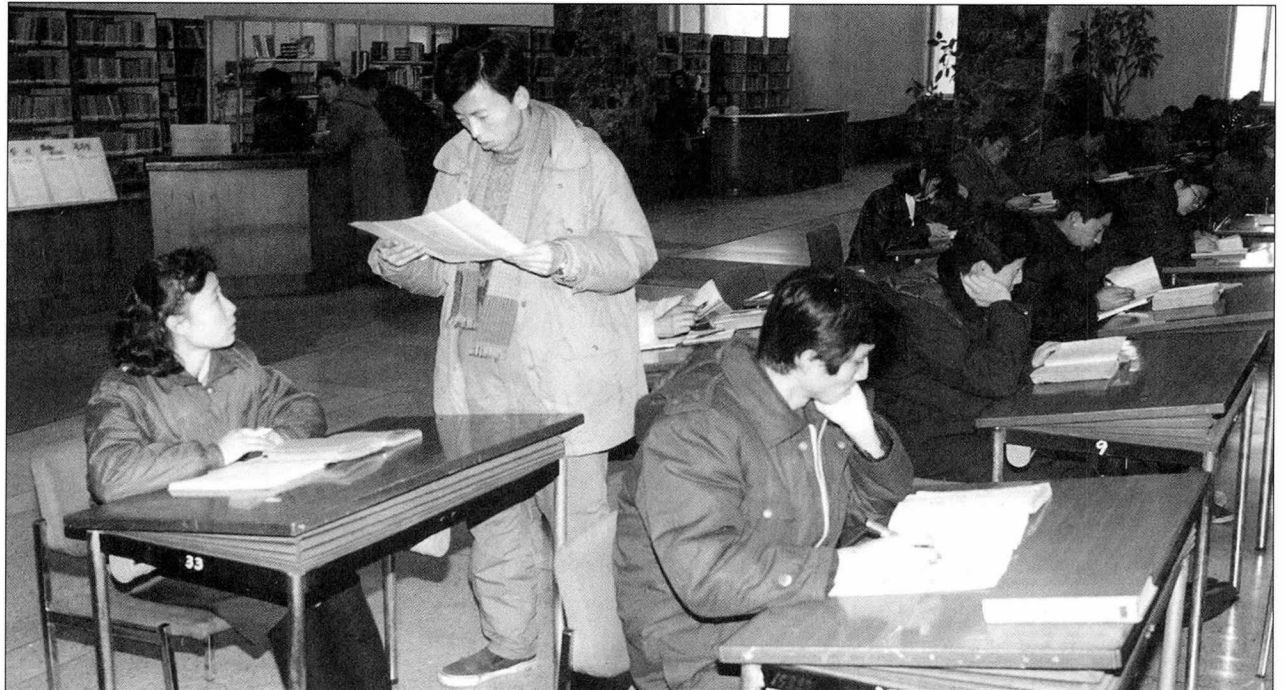
책 읽는 주민들도 많은 편이다.

승용차로 평양시내를 돌아보면 살림집(아파트) 1층에 자리한 구역도서관이나 서점들을 간간이 볼 수 있다. 외부 방문객이 구역도서관이나 서점을 직접 둘러볼 기회를 갖기는 어렵다. 그 대신 방문객은 평양 중심가에 있는 대규모 종합도서관인 인민대학습당을 방문할 수 있으며 고려호텔, 보통강호텔 등에 있는 서점에서 북한도서를 구입할 수 있다.

인민대학습당은 책을 빌리거나 공부하는 주민·학생들로 언제나 붐빈다. 인민대학습당 참관에서 느낀 점은 북한 주민들은 개인적으로 책을 구입해서 보기보다 도서관시설을 주로 이용한다는 점이었다. 인민대학습당 천장이 높아 조명은 다소 흐린 듯 느껴졌지만 학습과 독서에 여념이 없는 주민들을 볼 수 있었다.

학습과 독서에 여념 없는 주민들

대체로 책값은 북한 돈으로 2원 이하(공장노동자 월급 70~80원 수준)인데 심각한 종이난을 겪고 있어 책을 많이 찍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책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것 같다. 최근에 출판되는 모든 도서들이 누런 개지를 사용하며 재생지를 쓰는 경우도 많다. 선전화보집 약간을 빼고는 종이 질이 아주 나쁘며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출간한 김일성·김정일 저작류까지도 사정은 한가지다. 출판에 아직 컴퓨터 조판이 도입되지 않아 활판 인쇄로 책을 찍어낸다. 책



평양 중심가에 있는 대규모 종합도서관 '인민대학습당'에는 책을 빌리거나 공부하는 주민·학생들로 늘 붐빈다. (사진/중앙일보 김형수 사진기자)

커버에 디자인 개념이 도입되지 않고 장정도 허술하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대량 발간해야 하는 책을 중시하다보니 도서가 다양하지 못한 점도 우리와 다르다. 최근에 정책적으로 대량 발간한 책으로는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7권, 《김일성전집》(현재 1950년대 말까지 저작을 담은 23권까지 출간), 《김일성저작집》 44권, 《김정일선집》(현재 13권까지 출간) 등을 꼽을 수 있다.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발행하는 이 책들이 몇 부 인쇄되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지난해 6월에 정책적으로 출간한 장편소설 《영생》(백보흠·송상원 지음)이 초판 2만부를 찍은 것으로 보아 그 이상일 것으로 짐작할 뿐이다. 문학에 술종합출판사에서 내놓은 《영생》은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1997년, 그 해의 6개월간 그가 주민들을 위해 어떤 활동을 펼쳤는지 보여주는 추모소설이다.

노동당의 정책에 따라 출판되는 도서는 북한 전역의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도서관 망에 공급되며 당과 정부·사회단체·군 계통의 지도급 인사들에게 무료로 공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부 서점판매도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에서 베스트셀러를 꼽으려면 단연 김일성·김정일 저작류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나 출판총국 승인받아야

북한의 가장 큰 출판사는 조선로동당출판사이고 청년동맹출판사, 근로단체출판사 등 주요 기관이 운영하는 출판사들이 있다. 그리고 분야별 출판사로 사회과학출판사·과학백과사전출판사·과학기술출판사·공업종합출판사·농업출판사·의학과학출판사·문학예술종합출판사·평양출판사·금성청년출판사·교육도서출판사 등이 있다. 모든 출판사를 국가기관이나 사회단체가 운영하고 개별적 영리를 추구하는 출판사는 한 곳도 없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념성 도서·문예도서·기술실무도서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대중적인 인기도서는 물론 문예도서다.

북한에서는 각 출판사의 기획부서가 출판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내 출판총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사상·이념적으로 문제가 있는 서적은 원천적으로 출판을 봉쇄된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를 금과옥조로 여기는 북한에서는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책을 서술할 때 양김의 저작을 인용하면서 시작하게 되어 있어 어느 집 서가나 양김의 저작들이 그득하다. 북한의 선전책자에 등장

하는 살림집 전설(거실)의 서가에서 가장 눈에 많이 띄는 책도 양김의 저작류다. 이런 사정은 김일성종합대학에서도 볼 수 있었고 평양 제1고등학교 교장실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북한에서 1950년대 말 이래 집단주의가 강조되면서 1970년 말까지는 집체적 집필에 의한 출판을 많았고 필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서적들은 필자의 이름을 반드시 기록하는 쪽으로 풍토가 바뀌고 있으며, 편집자와 교정자 이름도 밝히고 있다. 북한 도서는 우리와 다른 문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사회과학분야 도서들은 교정자가 틀에 박힌 문장으로 고치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도서는 최종 인쇄에 들어가기 전에 국가검열을 받도록 되어 있어 그런 경우가 없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집필·편집·교정자가 연대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판사가 작가에게 인세를 어떤 식으로 지불하는지 알려진 바는 없다. 경제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 없지만 판매수익의 몇 %를 인세로 지불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책읽기는 중요한 문화활동

북한 주민들의 독서열기는 여러 곳에서 쉽

사이버공간에서 만나는 북한

통일부 웹사이트, 북한나눔운동 홈페이지 외

정창현 ·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기자

게 느낄 수 있다. 평양시내의 대동강이나 보통강 강변산책로, Moranbong 등지의 벤치에 앉아 독서에 열중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자주 눈에 띈다. 무케도전차나 지하철에서 책을 읽는 주민도 많고 외부 방문객이 이용하는 상점 판매원도 손님이 없을 때는 대체로 장편소설류를 많이 읽고 있다. 오락수단이 적은 북한사회에서 독서는 영화관람, 예체능활동과 함께 중요한 문화활동에 속한다.

북한 주민이 즐겨보는 종합잡지로는 <천리마>를 꼽을 수 있고 그밖에 <조선문학>·<청년문학>·<조선예술>·<조선영화>·<조선여성> 등 분야별 잡지(대체로 월간)가 있고 <경제연구>·<역사과학> 같은 전문지(대체로 계간)가 있다.

외부 방문객들이 이용하는 호텔 내 서점에 비치된 책은 대개 북한체제나 주체사상을 선전하는 홍보책자, 김일성·김정일 저작들, 소설·시집·전설집 등 문예물, 과학기술도서, 지도류, 평양시가지·관광지·역사유적 등을 담은 선전화보집 등이며, 가요·영화음악을 담은 CD, 영화·음악공연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 등도 판매한다.

고려호텔 서점은 10평 남짓이고 보통강호텔 서점은 이보다 약간 크다. 진열 판매하는 책 종류는 대중소이다. 외국인용 서점이어서 체제·이념 홍보책자의 외국어 번역판이 상당히 많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들 외국어 서적은 외국문종출판사가 발간하는데 영어·일본어·중국어·러시아어판은 물론이고 프랑스어·스페인어·아랍어판 등 매우 다양하다. 북한이 오랫동안 제3세계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중시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서적의 해외유통은 조선출판물 수출입상사가 전담하고 있다. 한국에서 북한도서를 구입하려면 정부 승인 아래 제일조 총련측과 계약을 맺어 합법적으로 수입·공급하는 (주)유피에이·교보문고 등을 통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북한도서를 출판하려면 남북교류협력법에 의거해 북측과 저작권 사용 관련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주)남북교역을 비롯한 일부 출판사들이 북측과 이 문제를 협의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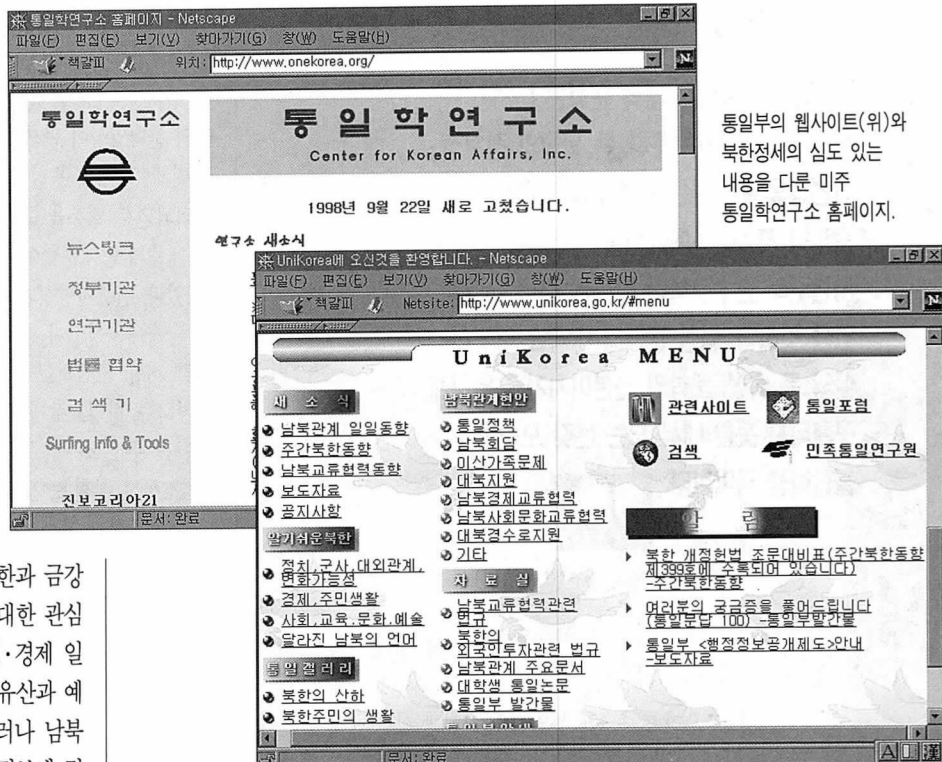
남북교류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정보에 접근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다. 인터넷을 통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는 통일부 웹사이트에서 편리하게 얻을 수 있고, <통일정보신문>이나 '남북나눔운동'의 홈페이지에도 북한 소식과 연구관련자료를 찾을 수 있다.

최근 현대그룹과 통일그룹이 북한과 금강산관광에 합의하면서 북한사회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치·경제 일변도의 북한이해에서 탈피해 문화유산과 예술분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남북교류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정보에 접근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가장 손쉽게 북한정보와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은 '정보의 바다'로 불리는 인터넷을 통한 것이다. 우선 기본정보는 통일부 웹사이트(<http://www.unikorea.go.kr>)에서 얻을 수 있다. 여기에는 남북관계 일일동향, 주간 북한동향, 남북교류동향 등 최근의 북한정보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주요 문서와 관련법규를 볼 수 있다.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 그때그때 충실한 답변을 얻을 수 있어 북한문제를 처음 대하는 일반인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북한인물의 약력을 알고 싶으면 서울신문사와 통일안보연구소가 제공하는 북한인명사전(<http://www.seoul.co.kr/north/north.htm>)을 이용하면 된다. <중앙일보> (<http://www.joongang.co.kr>)에서도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에서 발간한 <북한백과 CD롬>에 실려 있는 북한인명사전의 일부를 서비스한다.

일간 신문에도 거의 매일 북한기사가 실린다. 그러나 이를 일일이 챙겨보기는 전문가가 아니면 쉽지 않다. 이럴 때는 주간 <통일정보신문>(<http://www.unityinfo.co>



통일부의 웹사이트(위)와 북한정세의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룬 미주 통일학연구소 홈페이지.

kr)과 남북나눔운동(<http://sharing.peacenet.or.kr>)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각 신문에 실린 북한기사의 목록과 내용을 일별할 수 있다. 특히 남북나눔운동 홈페이지에는 북한소식을 알 수 있는 관련 사이트와 북한연구에 필요한 해외 주요 연구소가 연결돼 있어 편리하다.

북한의 투자희망정보도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산하 서울투자진흥사무소가 지난해 개설한 'UNIDO정보은행'의 개발도상국 투자정보 홈페이지(<http://www.ipsoseoul.org>)에는 수백여 항목에 걸친 각종 북한 투자사업이 망라돼 있다.

단순 정보가 아니라 북한정세와 노선에 대한 심도 있는 내용에 접근하려면 미주 통일학연구소(<http://www.onekorea.org>)에 접속해 보자. 북한의 입장과 최근 현안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해외연구소 중에서는 노틸러스연구소(<http://www.nautilus.org/napsnet>)를 빼놓을 수 없다. 이 연구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환경, 안보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으로, 한반도의 현안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토론마당과

미국정부의 관료 및 학자들의 증언 등이 실려 있다.

현재 북한이 직접 개설한 것으로는 <조선중앙통신>과 조총련기관지 <조선신보>의 웹사이트 등이 대표적이지만, 국내에서는 지난해 10월 정보통신부가 폐쇄 조치한 후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주간 <코리아웹>(<http://www.kimsoft.com/korea.htm>)에서 북한의 보도원문을 일부 영문으로 읽을 수 있다. 이 웹사이트에는 북한식량 돕기 관련 주요 단체들이 연결돼 있다.

이외에 북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웹사이트들이 있지만 자금부족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기대에 못치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없는 북한정보는 광화문사거리에 있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02-730-7013)를 방문해 직접 찾아볼 수 있다. 이곳에 소장된 자료는 자료목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목록은 빠르면 내년 초부터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된다. 이렇게 되면 북한서적의 출판, 입수 상황을 인터넷을 통해 현 눈에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